

Finding hypotheses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이슈와 소비행동 연구(2019, 저 백승헌/김기탁)’

미디어통계 6조
201821756 이지원
201821043 장지연
201921069 이의진
201421609 김종빈

1. 논문 검색 배경과 간략한 소개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던 조원들이 모였기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와 관련한 주제의 논문을 찾아보았다. 많은 논문 중에서도 데이터와 사회과학을 함께 다루는 주제를 찾기 위해 조원 모두 DBpia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에서 발행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이슈와 소비행동 연구(2019, 저 백승헌/김기탁)’라는 주제의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최근 확대되는 이슈인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인식이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보고 사회분위기에 따른 스포츠용품업계의 인식조사와 해결방안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던 2019년 7월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패턴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키워드 추출에서 나타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이룬 군집을 통해 불매운동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시대적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을 추출하는데 소셜네트워크의 빅데이터가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저자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선행연구조사 요약

이 논문에서는 두가지 분야의 선행연구조사를 참고했다. 첫번째 선행연구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진행된 불매운동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밝혀내는 연구였다. 두번째 선행연구는 마케팅 분야의 측면에서 온라인상으로 일어난 불매운동과 이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재고와 불매운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한 것이었다. 이렇듯 분야에 상관없이 불매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관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윤리적 측면과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불매운동과 관련된 스포츠 시장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한된 범위와 영역에서만 진행되어왔고,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불매운동 상황에서의 스포츠 시장과 글로벌 시장 환경 안에서의 불매운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여 사회문화정책과 스포츠용품 시장의 두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가설 소개

논문의 연구에서 불매운동과 관련된 소비자 인식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변인을 불매운동 관련특성(불매운동 필요성, 불매운동 소속감, 불매운동 혜택지각), 국민성, 태도, 소비행동 총 4가지로 설정하였다.

- 1) 불매운동 관련특성(불매운동 필요성, 불매운동 소속감, 불매운동 혜택지각)이 국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위 가설의 변인은 불매운동 관련특성, 국민성이다. 위 가설이 주장하는 것은 불매운동 관련특성 하위 요인들이 각각 국민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두 변인이 서로 관련(association)이 있다는 선언문이다. 불매운동 관련특성 하위요인 간 정적인 영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아니다. 이때, 독립 변인은 불매운동 관련특성 변인이고, 영향을 받는 종속 변인은 국민성이다.

- 2) 국민성은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위 가설의 변인은 국민성, 태도이다. 국민성은 독립 변인이며, 종속 변인은 태도이다. 국민성(후손들에게 떳떳해야함, 뜻을 굽히지 않아야함, 우리재품을 애용해야함 등)은 태도(불매운동이 바람직함,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함 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로, 두 변인이 관련(association)이 있다는 선언문이다.

- 3) 국민성은 소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위 가설의 변인은 국민성과 소비행동이다. 국민성은 독립 변인이며, 종속 변인은 소비행동이다. 국민성은 소비행동(샤이재팬 활동, sns를 통한 활동, 온-오프라인 적극적인 활동 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로, 변인간의 관련(association)이 있다는 선언문이다.

4. 변인 측정 수준

논문에서 조사한 연구를 구성하는 변인 항목을 나열하면 인구통계적 특성, 불매운동 필요성, 불매운동 소속감, 불매운동 혜택지각, 국민성, 태도, 그리고 소비행동이 있다. 본문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5점 Lickert scale에 의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것들의 측정수준을 보면 먼저 인구통계적 특성의 설문 항목에 제시된 성별, 결혼 유무, 학력 등은 연산이 되지 않고, 우열 또는 대소관계가 없이 ‘모 아님 도’로 답이 떨어지므로 nominal level(명목 수준)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것들은 Lickert scale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통계를 내었다고 하는데, 이것의 측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에 제시된 실제 설문 내용을 예를 들고자 한다.

	타인의 불매운동행동에 관심	.864	.243	21.078		
	불매운동 커뮤니티정보에 관심	.932	.141	25.111		
불매운동 소속감	나의 일처럼 느껴짐	.891	.210	22.611	.941	.761
	제품구매 시 불매운동 관련제품 확인	.799	.371	18.258		
	SNS 활용한 불매운동 관심과 공유	.888	.240	-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마 '1-매우 많다 2-많다 3-보통이다 4-그저 그렇다 5-아예 없다' 였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것은 nominal level(명목 수준)처럼 예/아니오로만 대답을 내는 것이 아닌 크다/적다의 비교를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변인을 가지고 변인들이 순서를 가질 때 ordinal level(서열 수준)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고 하지만 Lickert scale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4-5개의 일때 학자들은 Interval Level(등간수준)을 사용하여 측정한 Interval variable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의 변인은 Nominal variable과 Interval variab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